

## 教授의 役割과 使命

劉 奉 鎬  
(梨花女大 教育學科 教授)

### I

大學은 원래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단체」에서 출발하였다. 이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에서 교수는 가장 核心的인 구성요소로 되고 있는 것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공통된 사실이다. 대학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교수의 質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는 교수의 자질향상이 우선적인 要件이 되고 있다.

대학교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理念변천에 따라 변화하였고 대학의 조직과 성격, 대학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학교수에게 기대되는 役割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II

#### 1. 教授(teaching) 담당자로서의 役割

교수의 주된 課業은 흔히 가르치는 것(授業)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확실히 가르치는 과정은 가장 基礎的인 學習指導에서 가장 복잡한 高次的인 學習指導를 포함한 것으로 그

범위가 광범하다. 교수의 主要 責任의 하나는 학생들이 어떤 과제에 대한 本質的인 情報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과정에 대한 더 高次的인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眞實과 虛偽를 구별하도록 訓練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가를 구별하는 능력과 관련되고, 기존사실과 부합되거나 반대되는 결론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는 능력과도 관련된다. 만약에 사실의 결정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수집과 관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더 세련된 知的인 過程을 필요로 하게 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懷疑心을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수는 나아가 가르치는 제목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신빙성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된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있는 龐大한 자료를 빠르고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데 숙달될 수 있을 정도로 교수는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그가 연구할 제목에 관련된 가장 우수한 서적을 찾는 방법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기 간행물들에 묻혀 있는 귀중한 情報를 발굴하는 技法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찾아 낸 자료를 정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능률적 방법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것도 교수

의 主要 任務 중의 하나이다. 젊은 학생들이 자료수집기술은 빨리 습득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다루는 방법은 비교적 빨리 익히지 못하는 수가 많다. 이 과정은 어떤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자료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법을 요한다. 또한 교수들은 학생들의 보고서나 논문을 통하여 文章表現力의 水準 向上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교수(teaching)면에서 끝으로 교수가 유의하여야 할 일은 바람직한 수업태도이다. 교수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보람과 흥미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각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학생들을 유도하는 기본 전제는 교수자신이 보람과 흥미를 갖고 자기의 과업에 몰두하는 일이다. 만약에 교수가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어떤 것에 정신을 팔면서 가르치는 흥내만 내거나 또는 그의 강의가 너무 기계적일 경우에는 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성도 식어지게 마련이다.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교수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강의에 임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반드시 그 수업에 감화되어 열중하지는 않는다. 즉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생수가 많은 적든간에, 그 수강생들 중에는 수업에 무관심하거나 지리함을 갖게 되는 자도 간혹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교수는 최소한 수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자극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方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교수방법이 교수자신에게 가장 알맞으며 또한 특수한 유형의 수강생 또는 클라스(class)에 대해서는 어떤 教授法이 가장 적절한가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신의 깊은 관심과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이라 하겠다. 교수가 이와 같은 정열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쳐 나가면, 무관심과 지리한 태도를 갖던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차차 좋아지게 될 것이다. 수업시간에 교수는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독단적 권위주의는 교육상으로 볼 때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것은 바로 학문연구의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인 권위주의는 지나친 知的 自慢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에 대해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믿는다. 즉 세상만사에 대한 만고불변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겸양지덕이 없는 자이다.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이 정중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교수자신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교수가 학생들을 정중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교수가 자기 과업에 充實하고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만큼 知性的이 되려고 최선을 다할 경우에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교수가 자기의 제자들과 가장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과 더불어 공동의 목표인 眞理探究에 노력하고 학생들의 노력을 正當하게 평가해주면서 그들의 학문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자세를 갖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지금 당장은 미숙하지만 장차에는 그들이 교수 자신보다도 더 많은 면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갖는 知性人이 될 수 있을 것이란 前提下에 그들을 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의 교수란 우리들의 복잡한 文化의 값진 전통을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知的 성숙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배라고 할 수 있다.

## 2. 學問研究者 또는 學者로서의 役割

대학교수는 제 1 과업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제 2의 과업은 研究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연구가 제 1의 과업이고 가르치는 것은 제 2의 과업이라는 생각에서 행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 특히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의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수의 첫째 任務라고 간주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행정 책임자들은 교수들의 조사·연구업적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그보다도 더 質 높은 교수(가르치는 것)를 요망하고 있다.

대학원의 목적은 연구하려는 과업이나 가르치는 것을 그들 필생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대학총장, 학장, 학과 주임교수들은 연구를 중대시하는데 그 이유는 학술논문과 저서의 발표 또는 刊行이 강의실 또는 실험실에서의 수업을 통한 성공보다도 교수의

業績을 평가함에 있어서 더 객관적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학생들을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라 하더라도 學術論文의 발표 또는 著書 간행을 게을리하는 자는 크게 평가받지 못하는 예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실이 不可侵의 것으로 되고 있으며,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것도, 禁忌로 되고 있는 것이 不文律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불문율의 위배는 학문적 인격에 대한 체면손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생으로서의 교수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교수승진에 대한 심사책임울 지고 있는 사람(예컨대 총장, 학장, 학과 주임교수 등)들에게 보고되는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수가 많다. 행정책임자들은 학생들이 자기들 선생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타」(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조직적 시도를 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교수들은 조사·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발표를 그들의 활동 실적에 대한 가장 믿음직한 증거인 동시에 教授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과 조사·연구간에 합리적 균형을 취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等式化될 수가 없다. 그 기준은 교수 각자의 조건과 각자의 봉직하고 있는 대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교수에 대한 특별한 행동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자의에 의한 행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수업에 置重할 것인가, 研究에 置重할 것인가, 또는 양자에 같은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교수자신들의 기질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나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자신들의 기질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어떤 행정책임자들은 教授序列(階梯)의 昇進(昇級) 심사기준이 學問的 生産性(論文發表와 著述 등)에 바탕이 되어질 것이란 점을 명백히 해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연구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기질이 맞지 않는 교수는 억지로라도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연구에 배분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그 결과로 昇進과 신분보장은 가능해져더라도 그 연구결과

의 질은 높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研究發表의 量을 質보다도 더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많은 무비관적 학교 당국자들은 참고자료나 참고문헌 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수가 흔하므로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연구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학교에 따라 다르다. 국립이거나 사립이거나를 막론하고 종합대학교와 문리과대학에서는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편이다. 조사·연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심에 따라서도 교수들의 연구심을 북돋우는 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에 교수의 유일한 관심이 가르치는 것에만 기울어지게 된다면 철저하고 質 높은 수업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하면 수업이 하나의 틀에 박힌 과업이 되거나 지리한 반복과정이 되어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백출된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교수의 조사·연구제목이 그가 가르치는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그 조사연구는 자기 專攻科目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주고 수업에 대한 그의 반응을 새롭고 활기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의 관심이 學問的이라기보다도 創作的인 것일 경우, 예컨대 詩人, 小說家, 音樂家, 畫家 등의 경우에는 그 창작활동은 학문적 조사나 연구활동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수업과 창작활동을 위한 시간 및 에너지의 配分基準도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모험이 부수되기 쉽다. 즉 가르치는 과업 때문에 창작활동을 등한시하든지 또는 창작활동 때문에 수업을 등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예술가의 최고 관심사인 창작의욕이 위축되거나 수난을 당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크다. 특히 作家(詩人 또는 小說家)는 그의 창작 에너지가 학생들의 創作工夫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 가는 현상을 빚어 내는 수도 있다. 따라서 授業과 研究간에 적절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바와 비슷한 難點이 여기서도 介在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의 조사·연구에 대한 성격은 그가 가르치는 분야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대부

본의 교수들은 그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문의 特定한 部門·時代·類型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는 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위촉받아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또는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정력을 쏟는 나머지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어쨌든 연구자로서의 대학교수는 그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큰 知的 興味를 갖고 그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信念을 갖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연구에 관심을 가진 대학교수는 선생으로서의 책임과 學者로서의 책임감에 긴장감을 갖게 되지만 그 긴장감은 그가 흔히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되어질 수 있다. 긴 여름 및 겨울방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생활에서 맛 볼 수 있는 傳統的 附帶利益이다.

대학교수에게 주어지는 긴 방학에 대한 본래의 정당성은 그것이 그들에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방학은 선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특전이다. 따라서 교수들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불평에 대해 보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들이 긴 방학기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만 한다면, 그들의 自尊(self-respect)을 유지하고, 精神을 活性化시키고, 先任者로부터 인정을 받고, 學問世界에 대한 見聞을 높이는 등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3. 學生指導 내지 학생의 人格形成에 寄與하는 役割

교수의 과업은 수업과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수는 대학 또는 대학교란 복잡한 조직의 톱니바퀴의 이(齒)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學問的 機械의 능률적 操作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톱니바퀴의 「이」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 중에는 個個 學生의 문제를 풀어 주어

할 경우도 있고, 하나의 有機體로서의 大學組織을 능률적으로 操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학생지도는 교수의 固有한 역할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지도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成人이고 또 대학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學問 共同體의 연소 참여자에 대한 人格的 感化와 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개개 학생들과 관계되는 기능은 학생 개인의 健康·生活條件·社會的 行爲·教育의 發展 등의 문제와 관련된다. 점차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감에 따라 學生의 指導와 相談에 주어지는 시간과 관심의 量이 크게 증대되었다. 50여 년전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각자의 개인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학생들이 지도교수로부터 공부계획을 비롯하여 대학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서 諮問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담의 대부분은 대학 학칙을 설명해 주거나 그에 대한 위반을 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에 대하여 좋은 인상과 많은 관심을 갖게 되거나 혹은 학생이 자기 마음에 들고 존경할 만한 교수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는 그 학생의 능력 개발을 최대한으로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동시에 그 학생이 職業人이 되고 난 뒤에 본 받아야 할 일종의 인생귀감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귀중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의 다른 任務들은 하나의 機關으로서의 大學 또는 大學校가 불가피하게 당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생기게 마련이다. 이들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은 넓은 의미의 교육적인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교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루게 되는 것도 있다. 즉 대학교수는 학사담당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과성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위원회에 속하는 교수는 학업성적이 나쁘거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 懲戒問題(예컨대, 留級, 停學 또는 除籍)에 대한 결정에 발언권을 갖게 된다.

#### 4.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

中世大學은 教授와 研究가 主機能이었으나 오늘날의 大學은 社會에 대한 奉仕機能이 첨가되어 그것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實質的으로 社會發展에 크게 奉仕하고 있다. 따라서 教授는 一般社會에 대하여도 知性的인 見解로서 봉사하는 것이 큰 役割로 기대되고 있다. 그의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통하여 국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른바 '斯界의 權威者'로서 政議의 立案, 咨文과 協의, 연구용역, 成人들에 대한 敎養, 기타 광범한 通路를 거쳐 社會參與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새로운 역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教授들은 知的인 사고를 중요한 업무로 하기 때문에 原理원칙을 주장하고 불편 不當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 특성이다. 만약 教授들이 특수한 목적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와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批判을 포기 또는 상실한다면 그는 教授로서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지식인(教授)의 社會的인 役割은 理念的인 역할과 實際的인 역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지식인의 본질은 思考의 자유와 비판에 있는 것이므로 이념적인 역할이 제 1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식인은 專門的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문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제학자들은 경제현상에 관한 법칙을 추구하는 경우 학자로서 지식인의 이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쫓아서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해 내거나 특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지식인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환기 사회의 教授들은 이 두 갈래의 岐路에서 번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教授들이 社會發展을 위한 奉仕에 참

여할 때 그들의 지식이나 그가 수행하는 知的活動이 民族과 國家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思考의 自由와 선택의 특권을 상실하여 남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단순한 기능인이 되지 않도록 知的인 主體性과 양심의 순수성을 언제나 유지해야 할 것이다.

#### 5. 行政參與者로서의 役割

대학의 行政은 고도의 自律性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학의 內部行政에서는 教授들의 광범한 참여가 制度化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그와 같은 참여는 일부 教授에게 운번식으로 補職을 줌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教授회,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학 행정관계는 그 대학의 발전계획이라든가 학사문제, 학생문제, 教授들의 후생문제 등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간부들과 教授들이 공동으로 그 위임된 일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운영한다. 教授들은 이러한 행정보직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혜를 짜내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III

이상과 같이 教授는 授業, 研究, 學生指導, 社會的인 奉仕 그리고 大學行政에의 參與 등 여러 가지 측면의 役割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만족스럽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教授의 役割을 빠르게 수행하는 데에는 대학 나름대로의 學問的인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國家社會的인 積極的인 支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教授들이 갖는 자신들의 學問的인 發展뿐 아니라 學生들의 學問的인 成長 나아가서 國家·社會發展에 指導者로서의 使命을 다하게 될 것이다. \*